

2021 경기도 청년연구 공모 결과보고서

이주청년의 헬조선 생존기

- 경기도 북한이주, 난민 청년의 삶과 마음에 대한 탐색적 연구

K-청년구조대

연구책임 | 최기훈

공동연구 | 서가현
양준혁



경기복지재단
경기청년지원사업단

■ 청년연구공모사업 보고서는 청년들이 청년 관련 현안에 대한 실태와 개선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는 경기복지재단의 공식적인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과 관련한 의견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 031-267-9349 Fax : 070-8220-0200 E-mail : kimjm1785@ggwf.or.kr

요약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단일화되고 상향 표준화된 청년 담론에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면서, 사회적 자원과 제도적 보호의 최외곽에 있는 이주 청년의 삶에 대한 다각적인 이해를 도모하고자 함
- 당사자와 전문가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현장 연구를 통해 경기도 내 이주 청년이 청소년기를 벗어나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한국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여러 어려움을 진단함

□ 연구방법

- 경기도 내 이행기 이주 청년의 생활 실질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문헌을 분석하고, 현장 전문가 및 이주 청년 당사자와 일대일 대면 인터뷰를 실시하여 구체적 양상을 파악함
- 3시간가량의 대면 인터뷰는 인터뷰이가 가장 편안한 장소에서 반구조화된 질문지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이루어졌음. 인터뷰 결과는 녹취를 텍스트로 전사한 후, 분류 및 상위범주화를 거쳐 의미 위주의 자료 해석을 통해 분석되었음

□ 경기도 이주 청년의 삶

- -인터뷰를 토대로 하여 전반적인 취업 역량의 부재, 이주 과정으로 인한 학습의 격차, 인적 네트워크의 부재, 장기적 관점에서 진로설계 부족, 사회 제도적 차별과 배제, 문화적 차별, 마음적 측면에서의 정체성의 혼란과 폐쇄적 대인관계 형성 및 자존감 저하, 생활적 측면에서의 생활고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이행기 이주 청년의 삶을 파악함.

- 문헌 분석과 면대면 인터뷰를 통해 이주 청년이 이주 사회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 다면적인 자본이 부족하며 자아 및 자존감 형성이 미비하다는 점을 파악함. 더불어 우리 사회에서 이주 청년을 향한 문화 사회적 차별의 시선이 여전히 팽배해 있으며 이들을 향한 제도적, 정책적 차별과 배제 양상 문제가 심각하다는 시사점 또한 도출함.

목차

I | 여는 말 / 473

- 1. 연구 배경 473
- 2. 연구목적 474
- 3. 연구 방법 474

II | 이주 청년의 개념 및 현황 / 477

- 1. 이주 청년의 개념화 477
- 2. 경기도 이주 청년 현황 479

III | 이주 청년의 생활실태 분석 / 481

- 1. 이행기 청년의 구직·취업·진학 문제 481
- 2. 사회적·제도적 차별과 배제 487
- 3. 마음의 측면 489
- 4. 생활의 측면 492

IV | 맺는말 / 495

- 1. 경기도 이주 청년의 삶 496
- 2. 정책제언 498
- 3. 관련 해외 사례 499

| 참고문헌 / 501

표 차례

〈표 I-1〉 현장 연구 개요	475
〈표 II-2〉 이주 청년의 범주	478
〈표 III-3〉 탈북 학생에 대한 제도권 교육	483
〈표 III-4〉 중도 입국 학생에 대한 제도권 교육	483

그림 차례

〈그림 Ⅲ-1〉 취업에 대한 이주 청년의 인식	481
〈그림 Ⅲ-2〉 이주 청년의 학습 격차 경험	484
〈그림 Ⅲ-3〉 이주 청년이 경험한 교육에서의 어려움	484
〈그림 Ⅲ-4〉 이주 청년의 인적 네트워크 부재 실태	485
〈그림 Ⅲ-5〉 이주 청년의 진로 설계 지원의 필요성	486
〈그림 Ⅲ-6〉 제3국 출생 중도 입국 청소년의 정책의 사각지대	488
〈그림 Ⅲ-7〉 이주 청년의 문화적 차별 1	488
〈그림 Ⅲ-8〉 이주 청년의 문화적 차별 2	489
〈그림 Ⅲ-9〉 이주 청년의 대인관계 결핍 경험	491
〈그림 Ⅲ-10〉 이주 청년의 좌절 경험과 자존감 저하	491
〈그림 Ⅲ-11〉 이주 청년이 겪는 생활에서의 어려움 1	493
〈그림 Ⅲ-12〉 이주 청년이 겪는 생활에서의 어려움 2	493

I 여는 말

1. 연구 배경

□ 청년 담론의 대두와 그 핵심

- '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느 때보다 청년의 삶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이들을 종합하면, 저성장 양극화의 경제·사회적 위기 하에서 취업과 소득, 주거, 건강, 자산 등을 둘러싼 복합적인 불평등에 끼어 정상 생애로의 이행이 난망한 청년세대의 삶에 관한 논의임
- 사회학자 이스털린(1987)¹⁾이 말한 것처럼 우리 시대 개인의 성과는 그가 어느 세대에서 출생했는지가 중요한 요소로 작동함. 개인의 영역에서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사회 전반에서 과잉된 경쟁과 이미 불균형한 조건은 청년에게 거듭된 좌절과 실패의 경험을 심어주고 있음
- 다시 말해, 오랜 기간 형성된 다중적이고 중층적인 한국사회의 불평등은 부모 세대의 불평등이 전이된, 경쟁 과잉 사회의 취약계층 청년들에게 더욱 가혹히 전개됨

□ 취약자로서 이주 청년

- <88만원 세대>에서 촉발된 청년 주체 논의는 청년의 고달픈 삶에 주목하며 청년 문제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시켰음
- 그러나 근래의 <MZ세대>론에 투영되듯, 청년의 삶의 조건을 문제화하는 맥락조차 상업적 논리에 주도되거나 일부 상위 코호트의 풍요로움 속 문화적 현상처럼 뭉뚱그려 표상되는 것이 현실임(이광석, 윤지형, 2018 참고)

1) 리처드 이스털린, 「출생과 행운」, 시카고대학 출판부, 1987

- 단일화되고 상향 표준화된 청년 담론, 청년 정치는 사회적 자원과 제도적 보호의 최외곽의 ‘이주 청년’의 주체를 소외하고 있음
- 공공부문에서도, 다문화 정책의 지원 대상을 ‘결혼이민자와 아동, 청소년’으로 제한하는 등 25세 이상 이주 청년의 생활실태 파악을 어렵게 하고 있음
- 이주 청년은 청년을 둘러싼 한국 사회의 맥락에 소속되면서도, 지원을 위한 정책적 논의에서는 배제되어, 성인기 이행과정과 노동시장 진입을 두고 어려움을 겪어왔음
- 본 연구에서는 현장 전문가와 당사자의 발화를 매개하여 경기도의 이주 청년 담론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2. 연구목적

- 본 연구에서는 현장 연구를 통해 이주 청년의 삶에 대한 다각적 이해를 도모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을 이루고자 함
 - 국내에서 이주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인 경기도 내 이주청년의 삶을 구체적으로 그려내, 공식적인 청년정책의 논의 공간에서 맥락을 형성하고자 함
 - 국내에서 이주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인 경기도 내 이주청년의 삶을 구체적으로 그려내, 공식적인 청년정책의 논의 공간에서 맥락을 형성하고자 함
 - 청년세대와 관련한 논의 중 국가적 차원에서 중요 의제로 다루어지고 있는 청년 취업난과 관련, 이주 청년이 경험하고 있는 사회적, 정책적 조건과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자 함
 - 이를 통해 한국 사회의 일원이자 미래 세대인 이주 청년의 삶과 그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3. 연구 방법

- 본 연구의 방법은 크게, 관련 선행 연구에 관한 종합적인 분석에 더해 연구 주제 관련 당사자와의 인터뷰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현장 연구로 구성하여 구체적으로는 아래 제시된 바와 같이 진행됨

- 청소년기를 벗어나 이행기에 있는 경기도 이주 청년의 생활 실질을 파악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실시한 양적, 질적 정책연구 및 관련 학계 논문을 분석함
- 주된 연구방법으로, 현장 전문가 및 이주 청년 당사자와 일대일 대면 인터뷰를 실시하여 구체적 양상을 파악하였음
- 전문가 인터뷰에서는 탈북청년 관련 지원단체장 및 다문화 대안학교 교사 등 다년의 현장 경험을 통해 여러 사례와 통찰을 제공할 수 있는 현장의 전문가를 섭외하여 각 2시간가량의 대면 인터뷰를 실시하였음
- 이주청년 당사자 인터뷰에서는 각자 다른 이주 및 탈북 배경을 가진 20대 청년들을 만나 2~3시간가량의 대면 인터뷰를 실시하였음
- 현장 연구는 반구조화된 질문으로 핵심 질문만을 구성하여 질문의 순서를 고정하지 않은 채 자유로운 인터뷰로 구성하였음
- 특히, 연구진과 이주 청년 당사자 모두 20대 청년인 만큼 연구참여자와 연구진 간의 위계적 관계를 제거하고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가명 사용, 아이스 브레이킹 및 평어 인터뷰 등 여러 장치를 강구하였음
- 인터뷰 실시 전 연구 참여 동의서를 작성하고 인터뷰 녹취 활용에 관한 설명을 하였으며, 전 과정에서 사전에 합의된 가명을 사용하였음
- 인터뷰 결과는 녹취를 텍스트로 전사한 후, 의미 있는 발언을 1차적으로 분류하고 2차적으로 상위 범주화, 3차적으로 의미 파악을 위주로 자료를 해석함
- 구체적인 현장 인터뷰 내역은 다음의 <표>와 같음

<표 1-1> 현장 연구 개요

구분	분야	직급 / 경력
전문가 A	중도 입국 청소년 취업·진로 (기계, 설비, 전기 산업 관련)	현직 교사, 경력 10년 초과, 교무부장 역임
전문가 B	중도 입국 청소년 취업·진로 (대학진학, 관광 서비스 관련)	현직 교사, 경력 10년 초과, 교무부장 역임
전문가 C	탈북청년 취업·진로	민간단체 단체장, 경력 10년 초과
전문가 D	이주민 자녀 진로·진학	관련 기관 부서장, 경력 10년 초과
당사자 E	탈북청년 (대학 재학)	-
당사자 F	탈북청년 (대학 졸업 후 취직)	-
당사자 G	탈북청년 (대학 비진학)	-
기타자문 H	탈북, 이주민, 난민 법률지원	변호사
기타자문 I	지역 난민 구호	종교 관련 기관 부서장

Ⅱ 이주 청년의 개념 및 현황

1. 이주 청년의 개념화

□ 이주 청년의 개념과 범주

- 본고에서 정의하는 ‘이주 청년’은 부모와 본인의 이주를 배경으로 하는 다양한 청년 집단을 포괄하는 용어로, 학계와 정책 현장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이주 배경 청소년’ 논의의 연장에서 이들의 후기 청소년기(17세~24세)와 그 이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음
-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재단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홈페이지²⁾에 따르면, 이주 배경 청년은 국내 출생과 외국 출생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임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8조에 따르면, 이주 배경 청소년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과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지칭함. 여기서 의미하는 ‘이주배경청소년’은 여러 정책 및 연구 문헌에서 대체로 합의된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표>와 같이, 국제결혼가정 자녀와 탈북청소년, 외국인 가정 자녀의 세 범주를 토대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함

2) <http://www.rainbowyouth.or.kr/page/page24> (최종접속일 2021.11.07)

〈표 II-1〉 이주 청년의 범주

구분	특성	국내 출생	국외 출생
국제결혼가정 자녀	부모 중 한 명은 한국인	다문화 청소년	중도 입국 청소년
탈북청소년	부모 중 한 명이 북한이탈주민	북한 출생 후 탈북 또는 한국 출생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
외국인가정 자녀	부모와 본인 모두 외국 국적	미등록, 무국적자, 난민, 유학생 자녀	미등록, 난민, 유학생

자료: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홈페이지 게시자료 재구성

□ 국제결혼가정 자녀

- 국제결혼가정 자녀는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인 경우로 국내 출생인 다문화 청소년과 국외 출생 후 어느 정도 성장한 후에 입국하는 중도 입국 청소년으로 나뉨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적자와 외국 국적자 간의 국제결혼으로 이루어진 가족을 ‘다문화가족’으로 정의하므로 다문화 청소년은 곧 다문화가족의 자녀를 의미
- 중도 입국 청소년은 2000년 이후 국제결혼의 활성화로 인해 나타난 집단으로, 결혼이민자가 한국 국적자와 재혼하여 본국에서 출생한 자녀를 데려온 경우와 국제결혼가정의 자녀 중 한국인이 아닌 부모의 본국에서 성장하다 재입국한 경우를 말함

□ 탈북청소년

- 2018년 기준 국내 입국하는 북한 이탈 주민은 2012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김정은 집권 이후 입국자가 감소하는 추세이나 매년 1,000여 명 이상 입국하고 있으며, 입국자 중 72%가 여성으로 매년 여성의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통일부, 2019)
- 북한 이탈 주민 중 20~40대 청장년층이 전체의 75%를 차지하는데, 이 연령대는 노동 시장에서 가장 왕성한 활동이 가능한 시기인 동시에 이주 전 익숙한 생활 습관을 바꾸고 적응하는데 청소년기보다 상대적으로 어려운 시기이기도 함(전연숙, 2010)

□ 외국인 가정 자녀

- 외국인 가정 자녀는 국내 출생, 국외 출생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국내 출생의 경우 부모가 모두 외국 국적이면서 본인의 국적 또한 외국인인 경우임
- 이와 더불어 국적이 미등록되어 있거나 무국적자인 경우, 난민, 유학생 자녀인 경우를 여기에 포함함
- 외국인 가정 자녀이면서 국외 출생인 자는 부모가 모두 외국 국적이고 본인의 국적 또한 외국인 자로, 이 역시 국적이 미등록된 자와 난민, 유학생을 포함함

2. 경기도 이주 청년 현황

□ 이주 배경 청소년에 관한 통계로는 현재 행정안전부의 외국인 주민 자녀 통계와 교육부의 다문화 학생 통계가 있음

- 행정안전부는 2006년부터 외국인 주민 현황 자료를 생산하기 시작했고 2007년부터 외국인 주민 자녀 현황 통계가 발표되었음
- 2007년 부모의 국적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국제결혼가정(국제결혼이주자, 혼인귀화자, 기타 사유로 국적을 취득한 자) 자녀를 모두 조사했고 국적 분류는 외국인 부모의 국적에 따라 분류했으며, 부모 모두가 외국인이면 국적이 중복되지 않도록 부모국적중 한 곳을 선택하도록 했음
- 행정안전부의 2007년 당시 외국인 주민 현황 자료에 따르면 만 7~18세 이하는 2020년 기준으로 만 20~31세에 해당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현재(2021년) 청년기에 진입한 이주 청년의 규모를 파악하기로 함³⁾

□ 외국인 주민 자녀는 경기도에 가장 많이 있으며, 부모의 국적으로는 중국(조선족)인 경우가 가장 많음

- 전체 외국인 주민 자녀는 17,813명이며 경기도가 3,147명 서울 2,336명 전라남도 1,467명 충청남도 1,369명 순으로 나타났음
- 부모 국적별로는 중국(조선족) 6,556명, 일본 3,467명, 중국 3,279명, 필리핀 1,629명, 대만 619명, 베트남 594명, 미국 517명 순으로 나타났음

3) 다만, 입출국이 잦은 이주 청년의 특성상 추정치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함

Ⅲ 이주 청년의 생활실태 분석

1. 이행기 청년의 구직·취업·진학 문제

□ 전반적인 취업 역량의 부재

- 청년층 고용률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40% 수준으로 하락한 이후 지금도 그 수준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음.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격차가 확대되는 이중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 또한 심화하고 있음
- 주지하듯, 한국 사회의 청년이 취업을 위해 요구받는 역량은 매우 높은 수준임에도 그들에게 놓인 선택지는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가 대부분임. 불안정한 노동인 비정규직과 단기 일자리의 증가는 청년의 취업 준비 기간을 장기화하고 그동안 주거와 건강, 금융과 문화 등 여러 비노동시장의 문제를 악화하고 있는 형국임
- 한국에서 나고 자란 청년들도 기술자격, 학교·학벌, 봉사활동, 외국어, 공모전 수상에 더해 최근 뜨겁게 부상한 코딩 열풍까지 모든 스펙을 소화하기에는 버겁다는 점을 상기하면, 언어와 문화장벽을 넘기에도 버거운 이주 청년에게는 일자리의 질을 불문하고 노동시장 진입 자체가 어려운 과업임

<그림 III-1> 취업에 대한 이주 청년의 인식

“준비되지 못한 공부도 못하는 사람이 왜 여기 왔나 이 생각. (중략) 컴퓨터 배우고 이런 과정이 되게 재미있는데. 다른 사람은 한 번에 이해하는데 왜 저는 세 번, 네 번을 가르쳐줘야 하는지.” - (당사자 G)

“(이주 청년들이) 필요한 역량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학을 갔고, 그것을 극복할만한 지원이나 그런 시간이 부족하다.” - (당사자 F)

- 취업은 이행기 청년의 핵심 과제인데, 이주 청년이 그동안 받아왔던 다양한 형태의 지원과 정책적 배려가 취업시장에서는 더는 주어지지 않음⁴⁾
- 일례로 정원 외 특례입학 제도가 시행되어 비교적 원하는 대학에 어렵지 않게 진학할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에게도 의무 채용 제도는 존재하지 않으며, 탈북청년들은 농담조로 탈북보다 취업이 더 어렵다고 말하기도 함
- 따라서 노동시장에 편입되어 괜찮은 일자리로의 이행은 그동안 특혜⁵⁾의 조력을 받아온 이주 청년에게는 보조 바퀴 없이 달려야 하는 첫 도전이며, 정책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헤쳐온 이주 청년에게는 가장 큰 산으로 다가옴

□ 이주 과정으로 인한 학습 격차: 중도 입국에서의 격심

- 이주 청년은 유년기의 긴 이주 과정으로 인한 학습결손과 학령격차로 초기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특히 이주 청년 중 탈북청소년의 경우는 학습 격차의 어려움이 제도적 영역에서 가장 표면화되어있음
- 탈북청소년은 중국 등 제3국을 경유하는 과정에서 짧게는 수개월에서 북송 후 재탈북을 거치면 수년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이에 경기도교육청 조례⁶⁾에서는 “경기도교육감은 남북한 교육 차이 및 탈북과정의 학업결손에 따른 탈북가정청소년의 학습부진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제3조)하고 있음
- 또한 그러한 학습 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대안교육기관 및 평생교육시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4) 한편 대학에 진학한 북한이탈주민은 다른 학생들보다 중도 탈락률이 높고, 취업에 있어서도 주로 노동 집약적, 최저임금 적용 일자리의 비중이 크다고 알려져 있음

5) 특혜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본 연구진의 가치판단이 아니라, 탈북 배경 청년을 그려낸 여러 질적 연구에서 쓰인 당사자의 자조적 용어이며, 일례로 노은희 외(2016)에서 연구참여자들은 북한이탈주민에게 주어지는 ‘변칙적인 특혜’에 어느 정도 도움을 받았지만, 그들 스스로 이러한 특혜를 너무 당연시 여겨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하였음

6) 경기도교육청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2014. 10. 21. 경기도조례 제4798호, 2014).

- 중도 입국 청소년은 한국인이 아닌 부모의 모국 등 이주 전 사회에서의 성장배경을 가지고 한국 사회에 이주하기 때문에, 언어와 문화적 적응 등 여러 측면에서 재사회화 교육이 필요함
- 탈북 학생과 중도 입국 학생에 대한 주요 교육 제도는 아래 <표>와 같음

<표 III-1> 탈북 학생에 대한 제도권 교육

구분	입국 초기 교육	전환기 교육	정착기 교육
유아·초등 교육	삼죽초등학교 (통합교육)	-	일반 초등학교 (밀집학교 특별반)
중등교육	하나원 하나둘학교	한겨레 중·고등학교 (특성화 중·고교)	일반 중·고등학교 (밀집학교 특별반)
			대안학교 (여명학교, 하늘꿈 학교, 드림학교)

자료: 교육부 교육기획보장과(2017) 자료에서 발췌

<표 III-2> 중도 입국 학생에 대한 제도권 교육

구분	서울다솜관광고등학교	한국폴리텍다솜고등학교	무지개청소년센터 및 위탁기관
개요	공립대안학교 (서울특별시교육청)	국책대학 설립 사립대안학교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중도 입국 청소년 지원기관 (여성가족부 위탁운영)
특징	서비스 산업 위주 직업교육 및 대학진학 사례 다수	산업체 수요와 연계한 기술 직업교육에 강점	교육기관은 아니나, 한국어 교육 및 맞춤형 생활 지원
대학 진학	다수가 진학 희망 및 외국인 전형 등으로 대학 진학	재학생 중 약 40% 대학 진학	개별적 요구에 따라 취업 지원
취업	관광, 콘텐츠 위주 직업교육 및 관련 자격증 취득	재학생 중 약 40% 취업 선택하며, 그중 취업률 약 80%	개별적 요구에 따라 취업 지원
비고	-	나머지 20%가량의 학생은 귀화 시험 등 국적취득을 위해 6개월 ~ 1년 6개월의 대기시간 소요	기관의 성격상 진학, 취업보다 한국 초기 적응 지원이 목적

자료: 각 학교 홈페이지 및 본 연구의 전문가 인터뷰 내용에서 발췌 및 재편집

□ 탈북 학생과 중도 입국 학생에 대한 주요 교육 제도는 아래 <표>와 같음

<그림 III-2> 이주 청년의 학습 격차 경험

“직업상담사님이 한국 애들이랑 가서 공부하라고 해서 (학원에) 갔는데, 속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영어학원은 애당초 가질 않고 말투가 이런데. “야, 너 어디서 왔어.” 이럴까 봐. 그래서 지금은 저를 일대일로 가르쳐주는 선생님을 찾았어요. 봉사활동으로 숙제 주고 모르는 거 가르쳐주는 회계 선생님.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 (당사자 G)

- 당사자 G는 20대 중반에 탈북해 한국 생활 4년 차를 맞음
-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곧바로 취업을 택했는데, 영어와 컴퓨터 활용은 기본인 취업시장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 결국 물류 업계에서 택배 상자를 접는 일부터 시작하게 됨
- 취업·진로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을 때, 직업상담사 선생님께 도움을 받았는데 컴퓨터 학원에 갔으나 한국 학생들과 배움의 속도를 맞추지 못해 결국 학원을 그만둠
- 또한, 고치지 못한 북한 말씨가 대인관계에서 나쁜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하여 일대일 과외가 가능한 봉사자를 소개받아 영어와 컴퓨터 회계 등을 교육받음

<그림 III-3> 이주 청년이 경험한 교육에서의 어려움

“20대 초반에 왔지만, 공부를 막 선뜻 시작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중·고등학교를 지금 안 나온 상태고. 갑자기 또 대학교에 가고.” - (당사자 E)

“나는 거기서 영어를 공부했던 적에 ABCD밖에 몰랐어. (중략) 나는 영어로 수업하는데 뭐라고 말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야. 안 들리는 거야. 영어로 이수해야 하는 학점도 많은데.” - (당사자 F)

- 한편, 당사자 E와 당사자 F는 청소년기에 한국에 정착해 특별전형을 통해 서울에 있는 소위 명문대학에 진학함
- 그러나 제도권 중등교육을 어느 곳에서도 받지 못한 학습결손을 비롯하여 영어 등 과목에서의 남북한의 교육 격차로 대학 수업을 따라가기가 몹시 벅참
- 이는 탈북 배경 대학생을 다룬 정성희(2019)의 연구에서도 그들 다수가 한국말임에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휘와 용어 및 뉘앙스로 인해 학업능력에 대한 어려움과 자괴감을 느낀다고 응답한 점과 일맥상통함

- 중도 입국 청소년은 먼저 한국으로 건너간 어머니와 헤어진 뒤, 조부모와 함께 살며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다가, 한국 이주 이후에도 한국어를 할 수 없어 일반 학교에 입학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집에 혼자 있는 경우가 보고됨(조혜영 외, 2012)
- 같은 연구에서 중도 입국 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에 가더라도 적응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심리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발생함
- 김이선 외(2015)에서는 외국에서 성장한 15세 이상 중도 입국 청소년들의 1/3 가량이 NEET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한국에서 성장한 일반 청소년의 NEET 비율 대비 월등히 높은 수치임

□ 인적 네트워크의 부재

<그림 III-4> 이주 청년의 인적 네트워크 부재 실태

“북한이탈주민은 사회적 관계망이 확실하게 부족하죠. 가족들이 다 온 경우는 극히 드물고, 속성상 가족 단위로 움직이는 게 거의 불가능하니까. (중략) 도움을 받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어하죠. 아주 사소한 걸 몰라도 물어볼 데가 마땅치 않아요.” - (전문가 C)

- 이주 청년은 적응기에 인적 관계망의 부재로 어려움을 겪음. 전문가 인터뷰에 따르면 이주 초기에 갖게 되는 사소한 생활상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도움을 청할 곳이 마땅치 않음
- 이는 한국 사회에서 가족의 테두리에서 경험과 학습에 의해 형성하게 되는 문제해결적 지식인 암묵지(tacit knowledge)의 결핍을 의미함
- 당사자 F는 입국 초기 탈북민 커뮤니티와는 거리를 두었는데, 이은혜(2014)가 사례로 설명하는 것처럼 남한사회로 흡수되고자 하는 열망이 강한 이주 초기에는 남한사회 커뮤니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탈북 이주민 커뮤니티에는 거리를 둔 것임
- 이은혜(2014)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질적인 문화로 인해 경험하게 되는 소외감, 좌절 등으로 인해 탈북민 커뮤니티를 찾아 정서적 지지를 받고, 결국 건강한 적응을 위해서는 두 집단 모두 필요하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깨닫는다고 말함

- 위의 연구에 비추어 볼 때, 본 연구의 참여자 중 당사자 G의 사례는 이례적임
- 북한 출신임이 낙인이 될까 두려워 한국 사회 내 커뮤니티와 접점을 가지지 못하고, 접경 지역 출신 탈북민이 주류를 차지하는 탈북민 커뮤니티에서는 출신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쉽게 녹아들지 못하고 있으며, 동향 탈북민 모임에서도 북에 남겨진 가족을 생각하며 북을 그리워하는 당사자 G를 우울하다고 여겨 잦은 교류를 하고 있지 못함
- 홀로 탈북해 정착 4년 차의 서예지 사례는 생계와 취업 지원도 이주 청년의 삶에서 가치 있는 조력이지만, 더 나은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속마음을 터놓을 수 있고 지지와 연대를 기대할 수 있는 한국 사회 내 인적 관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함

□ 장기적 관점에서의 진로 설계 부족

- 이주 청년은 대개 입국 시기가 늦어질수록, 다시 말해 이주 당시의 나이가 많을수록 문화적 갈등 및 언어장벽으로 재사회화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진로를 설계하는 데서도 한계가 뚜렷함
- 북한이탈주민 관련 법률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으로 인정된 이주 청년의 경우 특별전형으로 대학입학이 가능하여 유예된 4년의 시간 동안 한국 생활에 적응할 여유가 있지만, 벌어진 학습 격차를 메우기에도 모자란 시간은 어떠한 진로를 선택할지에 대해 숙고할 기회를 주지 못함

<그림 III-5> 이주 청년의 진로 설계 지원의 필요성

“사회에 나와서 일정 기간 후에, 다시 한 번 그 사람들(탈북청년)이 진로를 자신의 인생 설계를 할 수 있도록 공적으로 도와주는 뭔가의 제도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 (전문가 C)

- 취업과 사회 전반에서의 인맥 등 여러 측면에서 대학교 졸업장을 준거로 한 학벌 중심인 한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진학을 희망하는 것은 합리적 선택으로 보임
- 하지만 어떤 연고 없이 정착하여 교육과 훈련에서 중도 탈락하지 않고 양질의 일자리를 찾기는 매우 쉽지 않음
- 특히 이주 청년 중 중도 입국의 배경을 가진 청년들은 언어장벽을 넘는데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국 사회의 직업 진로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 지원체계를 찾을

기회조차 부족함

- 오성배 외(2012)에서 말하듯 중도 입국 청소년의 경우 대부분 자신의 장래 희망이나 진로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행방안을 가지지 못할 가능성이 큼

2. 사회적·제도적 차별과 배제

□ 제3국 출생 중도 입국 청소년의 정책 사각지대

- 북한 출생 탈북청년과 제3국 출생 탈북청년은 부모님이 북한에서 태어나 탈북을 감행 하시고, 청소년기에 국내로 이주했다는 공통점이 있음
- 그러나 북한 출생 탈북청년과 주로 중국과 몽골인인 제3국 출생 탈북청년은 정책 지원에서 차별적 대우를 경험함
- 제3국 출생자는 제도권에서의 초·중등 교육 기회가 부재하였기 때문에 한국어 및 여러 문화의 습득이 더디다는 점에서 북한 출생 탈북 청년보다 더 많은 교육과 지원이 필요 하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북한 출생에는 국공립대학 등록금 면제, 기본 정착금 800만원, 주거 지원 혜택 이 주어지는 반면, 제3국 출생 청년에게는 일회성 양육 가산금 450만원과 대학 등록금 200만원이 주어지는 등 제도적 차별이 존재함
- 더불어 제3국 출생 중도입국 청년은 대입에서 다문화가족 자녀 특별전형이나 탈북민 전형에도 응시할 수 없음
- 다문화가족자녀전형은 결혼이전에 외국국적이었던 친모(친부)와 국적이 대한민국인 친부(친모)사이에 출생한 대한민국 국적자와 다문화가족지원법 2조,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3호, 국적법 4조에 의해 대한민국으로 온 결혼이민자나 귀화허가자의 자녀, 또는 친부모 중 일방 이상이 귀화에 의한 대한민국 국적취득자 가정의 자녀 등 특별한 자격을 지닌 수험생들에게 지원 자격을 부여한 전형을 말하기 때문에 제3국 출생 중도입국 청년의 경우 해당 입학 전형에도 응시할 수 없음
- 탈북민특별전형 에서도 북한 출생 탈북청년만을 취급하는 경우가 절대다수이기 때문에, 제3국 출생 중도입국 청년은 이러한 측면에서 제도적 차별을 경험하게 됨

<그림 III-6> 제3국 출생 중도 입국 청소년의 정책의 사각지대

“제3국 출생 학생은 특별하게 뭔가 지원해주는 게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요. 특별전형도 존재하지 않죠.” - (전문가 C)

“일단은 그 학생들의 국적 문제가 생기죠. 대부분의 국적이 중국이니까. (일각에서는) “중국 사람을 도와야 하느냐.”라고 질문하겠죠.” - (전문가 C)

“초중고를 중국에서 나왔다면 외국인 전형으로 가능하지만, 중도에 입국했다고 그러면 그런 것도 해당이 안 되니까. 결정적으로 가장 어려운 일이 대학 진학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예요.” - (전문가 C)

“대학 수시의 다문화 전형에는 중도 입국 아이들은 해당이 안 돼요. 외국인과 한국인이 결혼해서 그사이에 최초로 나온 아이, 친생자라고 하죠. 그런 아이만 되는 거예요.” - (전문가 C)

□ 문화적 차별

<그림 III-7> 이주 청년의 문화적 차별 1

“중도 입국 아이들도 똑같이 교육을 받고 성장을 해야 하는데. 교육적인 지체, 언어적인 지체, 그다음에 문화적인 지체. 진로에 대한 지체현상. 이런 것들을 계속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 (전문가 A)

“우리 사회에서 살아갈 때 외국에서 왔다고 외국인, 한국에서 있다고 해서 한국인. 이러한 것들은 자기만의 문화적 국가적 정체성에 따름이지. 더 큰 정체성은 지구인이라는 정체성이예요. 다 함께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라는 거죠.” - (전문가 A)

- 오랜 기간 교사로서 여러 배경의 이주 청소년을 지도해온 전문가 A는 한국에서 자란 선주민들과 이주민이 한 공간에서 함께 교육을 받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이들이 다름을 이유로 겪을 차별을 우려함
- 특히 이주 사회와 이주 전 사회의 문화적 이질성이 큰 중도 입국 청소년은 지역의 일반 학교에서 초급 한국어와 한국문화 등 절실히 요구되는 맞춤형 교육을 받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른 피부색과 능통치 못한 한국어 구사로 인해 또래 집단의 따돌림을 겪기도 함
- 전문가 A는 이에 각기 다른 지체 양상에 맞춤형으로 대응하는 다문화 대안학교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피부색과 언어 및 문화 같은 국가적 정체성을 넘어선 지구시민의 공동체적 시각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함

<그림 III-8> 이주 청년의 문화적 차별 2

“시장에서 과일이 너무 먹고 싶어서 저 이게 얼마냐고 물었는데, 북한에서 왔냐고 크게 물어서 그게 악몽으로 꿈자리까지 나오고 그래서 더 사람을 (피하게 된 것 같아요). 주변 애들이 “드라마 보고 그 말투 고치란 말이야.”, 이렇게...” - (당사자 G)

- 이주 청년 당사자 G는 20대 후반의 나이인데, 20년 넘게 써 온 북한 지역 말씨를 의식적으로 교정하기에는 녹록치 않음. 인터뷰에서 당사자가 ‘언니들’이라고 종종 언급하는 한국에 먼저 정착한 선배와 동료들은 그에게 드라마 속 말투를 닮아보라고 제안하지만, 쉽지 않은 과제임
- 당사자 G가 자택 인근 시장에서 겪은 에피소드는 탈북민들의 초기 정착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사건임. 북한이탈주민의 자아방어기제에 대해 연구한 조영아(2003)는 북한이탈주민 상당수가 자신이 북한 출신이기 때문에 무시와 같은 괴롭힘을 겪는다고 인식하며, 다른 어려움보다 남한 사람의 편견과 차별을 더욱 힘들어한다고 말함
- 비록 제도적이고 정책적인 차별은 아니지만, 이주 배경 때문에 당사자 G에게 집중되는 시선과 쏟아지는 질문은 현재까지 인간관계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기능함. 이러한 경험은 불안과 긴장을 일상화하여 그를 더욱 위축되게 하고, 탈북민으로서 자신에 대한 부정적 자기 인식을 고착화해 능동적으로 진로를 개발하고 사회에 정착하는 노력을 좌절시킬 우려가 있음

3. 마음의 측면

□ 정체성 혼란

- 20대 초반의 대학생 시기는 청소년학에서 후기 청소년기로 일컬어지는 발달단계로, 고등학교 졸업 이후인 만 18세부터 만 24세의 연령 집단을 말함. 후기 청소년기의 핵심 특성은 청소년이면서 동시에 성인이라는 점인데, 탈북 대학생은 선주민 대학생에 견주어 볼 때 비교적 후기 청소년기적 특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남
- 이들은 사회적 지향과 정체성 확립이라는 발달과업을 완수하는 청소년기를 지나, 노동

시장 진입을 예비하며 친밀감과 동시에 고립감 형성이라는 새로운 발달과업을 맞게 되는 성인기로 진입하게 됨

- 그러나 이 과정에서 탈북청년은 성인기 이후에 탈북한 사람에 비해 탈북을 오랫동안 준비하고 마음의 각오를 다진 경험이 부족하고, 아무런 준비 없이 새로운 문화를 접하는 경우가 많이 문화적 충격과 심리적 혼란이 크다고 알려져 있음
- 따라서 심리·사회적 불안정 상태에서 낯선 곳에 적응하며 청소년의 발달과업인 자아정체성을 형성하기 때문에, 이는 정상적인 정체성 확립 과정에 부정적 영향을 주며 동시에 성인기 이행과정을 수행하는 데서도 지체현상을 겪게 함
- 또한 중도 입국 청소년의 경우 외국에서 출생과 성장을 하면서 자국 문화와 민족성에 영향을 받으며 이미 어느 정도 사회화 과정을 거쳐 왔기 때문에 한국이라는 새로운 사회문화 환경에서 전혀 다른 가치관과 전통을 맞춰나가는 것에 희생이 따름
- 특히 정서적·심리적으로 민감한 청소년기에 &이주&라는 생애사적 사건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청소년기 자아정체성 확립이라는 발달적 과업과 함께 새로운 문화에 적응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게 됨
- 더불어 장기간 어머니의 부재로 인한 불안정한 양육환경 경험, 부모의 재혼, 새롭게 형성된 가족관계, 비자발적 선택에 의한 강요된 입국 등 대다수가 불안정한 성장환경에 놓여 있음
- 이러한 환경적 특성 때문에 중도 입국 청소년의 상당수가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정상적인 성인기 이행과정으로의 진입에 혼란을 겪고 있음

□ 폐쇄적 대인관계 형성

- 중도 입국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은 외모의 차이, 언어소통의 어려움, 문화적 차이, 사회적 편견 등으로 인한 긴장과 갈등이 더해져 나타남
- 사회적 위축이란 대인관계 형성의 어려움, 소외감, 우울, 부정적인 자아존중감, 무력감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심리·사회적 부적응 현상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
- 중도 입국 청소년이 직면하는 다양한 형태의 심리적, 사회적 위축과 부적응 현상은 가족의 지지와 사회적 지지로 완화될 수 있음. 가족은 개인에게 있어 가장 유력한 지지 체계이며, 가족의 지지는 가족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내적, 외적 긴장을 완화

하고 안정감과 효능감을 주는 일차적인 지원체계임

- 그러나 탈북청년의 경우에는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부모와 기타 대인관계가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다른 이주 청소년보다 우울, 불안 등의 심리적 스트레스를 심하게 겪을 수밖에 없음

<그림 III-9> 이주 청년의 대인관계 결핍 경험

“엄마랑 이렇게 떨어졌고 혼자. 혼자라는 그 느낌을 어떻게... 모르겠어요” - (당사자 G)

- 참여자 당사자 G는 부모 없이 홀로 한국에 입국하여 가족 구성원을 통한 심리적 안정감이 부족한 상태였음. 이는 참여자 당사자 G에게 내외적 긴장을 조성하였으며 사회적으로 자신이 불안정하고 고립되었다고 느끼도록 만들었음
- 이는 이주 전 사회와 이주 사회의 이질성과 본인의 태도도 물론 이주 사회에서 적응하는데 중요한 요소이지만, 무한한 정서적 사회적 지지를 보내줄 가족의 존재가 근본적으로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함

□ 거듭된 좌절로 자존감 저하

- 자아존중감이란 개인이 스스로 유능하고, 이 일에서 중요하며, 성공적이고, 가치 있다고 믿는 것을 말함. 다시 말해서 자존감은 다각도에서 자신을 평가하며 스스로 측정하는 자기 가치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나타냄

<그림 III-10> 이주 청년의 좌절 경험과 자존감 저하

“그쪽 나라에서 너무 힘들게 고생하다가 온 친구들은 막 “천국이다.” 이렇게 될 텐데. 나는 다 해주다가 한순간에 없어지고 모든 걸 내가 결정해야 하나까, 이게 상황이 너무...” - (당사자 G)

“오늘만 집에 먼저 가겠다고 사장님께 혼아서 휴대폰만 들고 도망쳐 나왔어. 그때 사장님한테 무서워서 오늘만 가겠다고 했는데 사장님이 괜찮다고 타일러.” - (당사자 G)

“외롭고, 막. 가족의 보살핌을 받다가 갑자기 나 혼자니까. 그 사실만으로 너무 충격이 크니까.” - (당사자 G)

“저는 사람도 사귀고 싶거든요. 전 만나서 얘기하는 게 더 좋은데. 제가 더 깊어지는 걸 싫어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 좋은지 나쁜지를 몰라서. 영원히 회사 다니는 언니들이랑 말동무하고...” - (당사자 G)

“저는 일하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집일은 안 하다가 나와 보니까 일을 너무 잘하는 걸 알게 되었어요” - (당사자 G)

- 이주 청년 참여자 G는 스스로 사람을 대하는 것을 즐겨하고 나서기 좋아하는 성격이라고 긍정하면서도, 차별에 대한 공포 등으로 타인에 대한 불신이 자라나 앞으로는 넓은 인간관계를 가지지 못할 것으로 낙담했음
- 이는 본 연구의 참여자 E와 대조적인데, E는 탈북이라는 이주 배경을 G와 공유하나, G와 달리 대학에 진학하여 소속된 학과를 중심으로 여러 우호적 관계를 형성하였고 작년에는 탈북청년과 선주민 청년의 교류 프로젝트를 이끈 경험이 있었음
- 참여자 E와 G를 고려해볼 때, 대인관계를 넓혀가는 여러 사회적 시도와 취업 역량의 증진, 학업 등 여러 분야에서 거듭된 좌절을 경험할 때 자존감이 저하되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꺼리게 하는 것으로 판단됨
- 그러한 자존감의 저하는 대인관계 형성과 개인의 건전한 인격 발달, 성취의 욕구 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4. 생활의 측면

- 지난 2019년 8월 탈북자 모자가 아사한 채 발견돼 한국 사회에 충격을 안겼음.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탈북민에 대한 긴급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탈북민 중 긴급 지원이 필요한 '위기 의심자'가 총 553명으로 파악됐다고 밝힌 바 있음
- 탈북을 비롯한 이주 배경 청년은 일용직 근로자 등 고용이 불안정한 일자리를 상시로 경험하는 사례가 많고 자신의 생계뿐 아니라 이주 전 사회에 있는 가족, 혹은 다른 지역에 오가지 못하는 가족을 금전적으로 도와야 하는 때도 있어 곤혹스러운 상황에 부딪치게 됨

- 이방인에서 출발해 이주 사회에 적응하는 쉽지 않은 과정을 수행해 내면서 자신의 생계를 지탱하고, 원격의 가족까지 부양해야 하는 일부 이주 청년은 결국 금융권에 막대한 빚을 지는 경우도 발생함
- 탈북민의 경우에는 탈북과정에서 의존적 지위를 형성하는 탈북 브로커에게 값을 대금 이 부채로 남게 되고, 정착 지원금을 볼모로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도 발생하기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할 수 있음

〈그림 III-11〉 이주 청년이 겪는 생활에서의 어려움 1

“부모님이 지금 여기 오신지 7년밖에 안 됐고 그 부모님이 쌓으신 사회적이라든가 경제적인 어떤 기반이 전혀 안 되어 있잖아요.” - (당사자 E)

“자신의 생활비를 쪼개서 한다든지 또 일부 장학금을 받은 거를 이렇게 한다든지. 심지어 대출까지 받아서 (전략) 공부를 해야 하는데 그런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 (전문가 C)

- 이주청년은 한국 사회에서 이주 전 사회에서 쌓아 왔던 인적, 자본적 기반을 거의 활용할 수 없는 채로 저숙련 저임금 일자리에 주로 종사하여 생계유지를 넘어선 안정적인 경제적인 기반 마련이 어려운 상태임
- 전문가C의 언급처럼 대학에 진학한 이주청년은 학습격차로 인해 학업에 열중해도 모자란 상황에서 생활비를 쪼개 본국의 가족에게 송금하거나 대출을 받는 경우도 발생함

〈그림 III-12〉 이주 청년이 겪는 생활에서의 어려움 2

“아웃풋이 나오려면 인풋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진짜 자본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토익 학원에 다닌다던가 아니면 뭐 자격증을 따려고 해도 그런 지원이 첫 번째로.” - (당사자 E)

IV 맺는말

□ 오늘날 누구나 해보았을 ‘의자 앉기 게임’에 한국의 온 청년이 몰두하고 있는 취업시장의 현실은 공공연한 사회 현상이 되었음

- 폭신한 의자부터 불편한 의자까지 일자리의 질은 다르고, 누가 폭신한 의자에 앉느냐가 중요한 화두가 되었지만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해가 갈수록 의자가 하나씩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임
- 폭신한 의자 쟁탈전의 규칙이 얼마나 공정해지더라도, 같은 출발선에 서지 못한 청년들이 낙오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음

□ 지금까지의 청년정책은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구호 하에 청년실업정책 일변도로 구성되어왔으나, 취업을 앞둔 이 시대 청년의 겪는 어려움을 잘 보여주는 이주 청년의 삶은 실업 정책에서 이행 자체를 지원하는 종합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함을 말하고 있음

- 일자리의 문제에서 소외되고 방치되어 사회와 고립된 청년의 문제로, 고용지표의 개선을 위한 단기 일자리 양산에서 청년 시민이 더 나은 삶을 누릴 권리보장으로, 수도권/중산층/명문대졸 위주의 ‘K-청년론’에서 이주 배경을 꺼안고 개인의 페이스와 다양성을 고려하는 K청년의 재진단이 필요함
- 특히, 이주 배경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논의가 필요함
- 인구절벽 시대의 노동 생산성 유지를 위해 전면화될 이주 사회를 대비하기 위함에도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지만, 이주 청년 담론의 활성화는 주류 사회의 K청년을 위한 것이기도 함

- 이주 청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관점은 그들의 단순히 인구 집단에서의 많고 적음에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다양성과 청년 담론에서의 주체성을 함께 고려하여 한국 사회에서 마찬가지로의 청년 계층으로서 다가가야 할 것임
 - 유년기를 입시 공부에 전념하며 생존과 경쟁을 제1 가치로 체화한 한국 청년에게 1등이 아닌 위치는 과잉경쟁 속에서 한시도 불안을 떨칠 수 없음
 - 인구 집단으로 볼 때 한국에서 이주 청년은 소수이지만, 청년 담론에 이주 청년이 녹아들 때 선물하는 다양성은 명문대에 진학하지 않고, 비수도권에 잔존하며, 권장되는 생애 경로를 따르지 않는 보통의 K청년 주체가 정책 공간에서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임

1. 경기도 이주 청년의 삶

- 이주 사회 적응에 있어 다면적인 자본 부재
 - 이주 청년은 적응기에 인적 관계망의 부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은혜(2014)에서는 탈북민들이 탈북민 커뮤니티를 찾아 정서적 지지를 받기 때문에, 건강한 적응을 위해서는 동질적 배경을 공유하는 탈북민 집단이 필요하다고 논의한 바 있음
 - 참여자 당사자 G의 사례에서 비추어 볼 때 생계와 취업 지원도 이주 청년의 삶에서 가치 있는 조력이지만, 더 나은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속마음을 터놓을 수 있고 지지와 연대를 기대할 수 있는 한국 사회 내 인적 관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함
 - 또한 이주 청년 중에는 일용직 근로자 등 불안정한 고용 형태의 노동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은데다, 자신의 생계뿐 아니라 가족을 위한 경제적 부담과 빚을 떠안는 사례가 있어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가능성을 낮추고 있음
- 문화충돌과 교육 지체로 인한 자아 및 자존감 형성 미비
 - 이주를 본격적으로 예비하고 이주 사회의 문화와 제도를 학습하는 경험이 부족하고, 부모의 초청으로 갑작스레 한국 땅을 밟게 되는 탈북 및 중도 입국 자녀의 사례처럼, 아

- 무런 준비 없이 새로운 문화를 접하는 경우가 잦아 문화 충격과 심리적 혼란이 가중됨
- 특히 중도 입국 청소년의 경우 외국에서 출생과 성장을 하면서 자국 문화와 민족성에 영향을 받으며 이미 어느 정도 사회화 과정을 거쳐 왔기 때문에 한국의 새로운 사회문화 환경에서 전혀 다른 가치관과 전통을 맞춰나가는데 큰 어려움을 겪음
- 이러한 어려움에도 일반 학교는 이들의 적응을 돕는데 무력하며, 부모님의 부재로 인한 불안정한 양육환경 경험이나, 부모의 재혼, 새롭게 형성된 가족관계, 비자발적 선택에 의한 강요된 입국, 생활고 등 대다수가 불안정한 성장환경에 놓여 있음

□ 문화적, 사회적 차별의 시선은 이주 청년에게 익숙한 일상임

- 이주 청년이 적응에서 겪는 여러 난점에 더해 한국 사회의 획일화된 ‘보편적 한국인상’은 각고의 노력을 통해 ‘한국인 되기’의 목표를 이루거나, 호기심을 넘어 배타적인 눈길을 견뎌내야 하는 두 선택지를 강요하고 있음
- 드라마 주인공을 따라하고 한국 문화를 이해한다고 해도 변화하기 힘든 억양과 피부색과 같은 이주 전 사회의 흔적은 이들에게 가슴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함
- 이는 이주청년의 성공적 정착을 다루는 취업 및 진학 성과 등 정량적 지표와 별개로, 이주 청년의 정체성과 상처 입은 마음을 돌보는 사회적 시도가 실패했으며, 그들이 이주 전 사회에서 가져온 이질성 또한 한국 사회를 구성하는 일부분임을 선언하는 사회통합의 정책적 노력 또한 부족했음을 의미함

□ 이주의 속성에 따른 제도적, 정책적 차별과 배제 양상

- 탈북을 배경으로 하는 이주청년 집단 내에서도 출생지에 따라 처우가 크게 다름. 특히 한국사회에서 대학교 졸업장이 주는 의미를 고려하면, 탈북민과 비교하여 대학입시에 서 제3국 출생 탈북청년 및 중도입국 청소년 앞에 주어진 입시 체제는 실질적 정의에 비추어 불균형하다고 할 수 있음

2. 정책제언

□ 제도의 개선

- 본고 14면에서 제3국 출생 이주배경 청년이 겪는 정책 사각지대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음. 이들은 실질적인 필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제도적 차별 속에서 금전적 지원과 대학 입학 전형에서 기회의 부족을 경험하고 있음.
- 또한, 이주 청년의 경우 각기 다른 이주 배경으로 인해 맞춤형 적응 지원과 교육 격차 해소 및 진로지원이 필요하므로 일반학교 보다는 대안학교가 정책 수요에 잘 대응하고 있는데, 다문화 대안학교가 주로 속하는 대안교육 특성화 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규정된 대안학교에 해당하게 됨. 대안학교라는 법적 테두리는 용이한 학교 설립과 자유로운 교육 과정 수립에서 장점이 있지만 특성화고등학교를 위한 직업교육 재정지원이나 특성화고 대입 전형에 지원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음. 운영 실질을 볼 때, 특성화고등학교에 준하는 양질의 직업교육을 위한 물질적 지원과 대입에서의 제도적 배려가 절실함.
- 경기도는 다문화 학생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고, 이러한 추세는 증가하고 있음에도 지역 내에 공립 다문화 대안학교는 한 곳도 존재하지 않음. 주로 대안 학교의 교육이 필요한 중도입국자녀들은 다솜관광고등학교 등이 있는 서울이나 새날학교가 있는 부천으로 향해야 하는 형국임. 따라서 다문화 가정의 많이 거주하는 지역(경기도 안산, 동두천, 부천 등 지역)을 중심으로 공립 다문화학교 설립을 위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음.

□ 경기도 내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 경기도 내 지원센터 활성화를 통해 이주 청년의 정체성 확립 문제와 인적 네트워크 결성을 도모하여야 함
- 상담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이를 활발히 운영하여 청년의 자존감 하락과 우울, 불안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여 이주 청년의 인적 자본 부재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여야 함
- 더불어 정착 지원 전문가들을 센터에 배치하는 등 전담 인력을 별도로 활용하여서 해

당 청년의 정착과 적응을 지원하고 언어 지원 프로그램을 추가로 운영하여 이주 청년의 언어 습득의 어려움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임

□ 이주 청년의 취업 경쟁력 강화

- 이주 청년은 한국어와 영어 구사력이 부족하고 이주 과정에서의 학습 결손으로 인한 지식의 양과 질적 부족이 현저하기 때문에 한국 노동시장에서 저임금, 저숙련 일자리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음
- 이주청년의 직업훈련과 전문 기술 취득을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기존에 존재하는 청년 지원정책을 확장하고, 전 단계에서 접근이 용이하도록 해야함.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취업성공패키지 정책에 이주 청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개정하고 직업 상담 인력을 재교육하여 언어 구사능력 향상과 직업 능력을 동시에 갖추어 나가도록 해야함.
- 중앙정부의 정책과 어긋나거나 크게 중복되지 않는다면, 경기여성취업지원금(2021)의 사례와 같이, 이주 청년을 초점집단으로 하여 집중적으로 진로계획 수립과 그 실천 및 생활 안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할 당위성이 확보됨.

□ 문화 다양성, 상호문화 이해 교육 활성화

- 한국 사회에서 이주 배경 청년으로 살아가는 것은 때로는 사회적 낙인(stigma)을 동반함. 이들에게 집중되는 시선과 쏟아지는 질문은 현재까지 인간관계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기능함
- 이러한 경험은 능동적으로 진로를 개발하고 사회에 정착하는 노력을 좌절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장기적인 시각에서는 이주민과 선주민의 통합적 교육 및 사회정책을 통해 사회 전반의 문화 다양성과 수용성을 증진할 필요가 있음.

3. 관련 해외 사례

□ 미국의 개방적인 이주 정책으로 인한 이주민 난민의 증가는 이주 배경을 지닌 아동 청소년들의 증가를 촉진해왔음

- 미국은 부모의 신분과 별도로 이주 가정 자녀들이 자국에서 자라나고 교육을 받으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이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개방적인 정책 기초를 가지고 있음
- 특히 미 이주 아동도 동일 기간의 무상 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사회의 모든 학령기 아동들은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특징이 있음
- 다만 대학교육의 경우 입학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대부분의 주의 비주민 등록금 제도로 인해 비싼 학비로부터 비롯된 진입장벽이 존재하고 있음
- 대표적인 이주가정 자녀 정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먼저 이주 아동 교육지원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는 이주 아동의 교육 단절을 막고 학업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자 하는 것을 말함
- 둘째로 언어 지원 관련 프로그램은 이주가정 자녀들이 영어를 원활히 구사하여 학업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들 청소년의 모국어로 수업을 따라갈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 것을 말함
- 셋째 뉴커머 프로그램은 영어 비숙련 이주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기본적인 영어 능력과 기초 학업능력을 획득하도록 하고 미국의 학교 시스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프로그램임
- 마지막으로는 난민 특화 프로그램이 있는데 난민학교영향프로그램 등 난민만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놓고 있음

□ 캐나다는 다문화국가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캐나다는 이주가정 자녀들이 자신의 문화적 배경에 대한 자부심을 잃지 않으면서 동시에 캐나다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사회문화적 경제적 자원들을 갖추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을 마련하고 있음

- 대표적인 제도로 전담 인력 SWIS(Settlement Worker in Schools) 제도가 있음
- 이 제도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정착 지원 담당자들을 이민자가 많은 지역의 학교에 배치하는 등 해당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 인력을 별도로 운영하는 것임
- 이들은 학교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조언과 상담을 하고 개인별 요구에 적합한 생활지도와 안내를 보조하여 청소년들이 캐나다 사회에 재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음

참고문헌

- 경기도교육청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2014. 10. 21. 경기도조례 제4798호, 2014).
- 교육부의 다문화 학생 통계
- 김이선·최윤정·동제연·신현옥 (2016).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진출을 위한 직업군 개발 및 취업지원 방안 연구.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 류성창·김성기·김재우 (2015). 다문화 · 탈북 학생들의 진로교육 및 취업지원 강화 방안에 대한 연구. 교육부.
- 배상률 (2016). 중도입국 청소년의 실태 및 자립지원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광석, 윤자형.(2018).청년 대중서로 본 동시대 청년 담론의 전개 양상. 언론과 사회,26(2),77-127.
- 이유신, 김한성.(2014).중도입국 아동·청소년의 차별경험과 학교생활부적응: 교사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29(),263-282.
- 이은혜 (2014). 탈북 대학생의 커뮤니티 경험을 통한 문화적응 양상.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학위논문
- 이채영. (2014) "탈북 대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적응유연성이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 국내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전경숙 (2017). 다문화가정 중도입국청소년의 진로준비와 정착계획에 관한 탐색적 연구. GRI 연구논총, 19(1), 441-473
- 전연숙,강혜영.(2010).탈북여성의 진로장벽 지각.한국심리학회지: 여성,15(3),469-487.
- 정성희, 조은식. (2019). 탈북대학생 학업 적응 곤란 요인 및 적응 지원 방안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11): 1257-1279

조영아, 전우택 (2004). 북한 출신 대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상담 및 심리치료, 16(1), 167-186.

좌동훈(2014). “중도입국청소년의 출신 국적과 문화적응 유형에 따른 심리, 사회적 적응 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21(1): 97-126.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통계

행정안전부 외국인 주민 자녀 통계

리처드 이스털린.(1987).「출생과 행운」. 시카고대학 출판부,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홈페이지 <http://www.rainbowyouth.or.kr/page/page24> (최종접속일 2021.11.07)